

현대유비스병원, 백아도 찾아

도서주민 무료진료 실시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현대유비스병원 의료진이 백아도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1심1주치병원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7명의 의료진이 참여하여 가정의학과진료, 약 처방 및 건강상담, CPR교육, 도수치료, 수액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고령층 주민을 대상으로 협압·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 상담, 운동치료, 노인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CPR)교육도 병행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할을 높였다.

주민들은 "백아도는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병원 진료가 쉽지않는데, 직접 찾아와 진료해 주고 교육까지 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대유비스병원은 2024년 웅진군과 체결한 '1심-1주치(主治)'병원 민관협력 무료진료 업무협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도서지역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웅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간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구, 인플루언서 및 기자단

제3회 배다리 축제 팸투어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8일 인플루언서 및 기자단 14명을 초청하여 제3회 배다리 축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동구 스탬프 투어의 배다리 코스 ▲배다리 성냥마을박물관 ▲배다리 아트스테이1930 ▲스페이스 빔 ▲인천장영초등학교 구교사 ▲배다리 로드갤러리 ▲여성교사기숙사 ▲인천 영화초등학교 구교사를 탐방했다.

탐방 후 북촌문화공간인 창영당에서배다리 성냥공장이야기"인형극을 관람하거나 창영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박의상실 및 지역주민이 제작한 한복 및 생활복을 입고 선보이는 패션쇼도 취재했다.

마지막으로 창영 철로변 특설무대에서 열린 <철로변 음악회>에서 '옥탑방 밴드', '고행산 밴드', 현악 앙상블 '에이스트링', 인디 듀오 '경인고속도로', '디에이드-어쿠스틱 콜라보'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관람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역사가 깊은 배다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번 팸투어를 진행했다"며 "동구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관광 콘텐츠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5일 주민행복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배관세척관리사 직무체험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개최

공사·공단 임직원 500여 명 참석…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시정 공감대 확산

원탁토론 대신 현장 대화로 시민 의견 수렴… 유정복 시장 “소통을 시정의 최우선에 둘 것”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1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사·공단 뿐 아니라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토론회는 기존의 원탁

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인천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시민의 꿈(dream)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직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형 시민행복정책인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전원시리즈>, 경인지하화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청년, 환경, 경제·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교통의 10대 분야 인천시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며, 이번 토론회가 시민 행복으로 이어져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의 3대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생각하며 시민 행복을 위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디지털 인권토론회 운영

중학교 교사 대상 2026 고입 진학설명회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중앙도서관 문화누리터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인권 인식과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디지털 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국제팀장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인권 현안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AI·디지털 불평등과

공정한 기회 ▲AI·디지털 리터러시와 가짜뉴스 ▲AI 기술 혁신과 규제 ▲디지털 웰빙과 과의존 ▲데이터프라이프와 초상권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직접 디지털 인권 강사의 역할을 맡아 교육자료를 제작·발표하며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동적 학습자에서 벗어나 디지털 인권 문제 해결의 주제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입을 위한 중학교 교사 대상 진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고입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진학 정보 △IB 중점과정 안내 △2026학년도 고입 주요 변경 사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위한 고입 업무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한 참석 교사는 "고입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로·진학·직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제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중구·인천공항공사, '수질오염사고 합동 훈련'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지난 21일 인천공항 하늘공원 인근 유수지에서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 중구청,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가했다. 또, 오일펜스, 오일붐, 유층착제, 유처리제 등 기름유출사고 시 사용되는 각종 방제장비와 물품이 총동원됐다. 훈련은 하늘공원 인근 공항동로 135번길 도로에서 유류 운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돼 약 10kL 가량의 유류가 유수지로 유입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상황반, 방제반, 오염조사반 총

3개 반으로 나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며 대응 요령을 익혔다.

주요 훈련 사항은 ▲상황반 사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인근 유관기관에 방제 협조 요청 ▲방제반 방제 작업 실시 ▲오염조사반 시료 채취 ▲자갈·수로변에 부착된 기름 제거 ▲폐기물 회수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방제 능력을 향상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응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강화해 깨끗한 수생태계를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구, 치매안심마을 6개 동으로 확대 운영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2일, 가정1동을 서구의 여섯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었다. 이와 함께, 주민 대상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치매안심마을의 의미와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치매예방에서 돌봄까지 함께 참여하는 마을 단위의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시스템이다.

이에,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서 2019년 연희동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을 시작으로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가좌4동, 석남2동으로 점차 확대하여 운영해왔으며, 올해 가정1동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총 6곳으로 확대했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주민대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가정1동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지역 내 이해와 배려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 설계공모 당선작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삼산면 매울리 장곳항 '어촌스테이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은 지역 소득증진과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신활력 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2개 업체가 응모했고, 이 중 14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건축의 기능성 ▲지역성 ▲경관 조화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였다.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은 판매시설, 회의실, 교육공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어촌스테이션 본동과 함께, 별동으로 수산물 보관·저장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은 연 면적 75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5억 원이 투입된다.

강화군은 설계공모 당선업체와의 계약을 거쳐 11월 설계용역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곳항 어촌스테이션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방문객이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어촌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촌계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김선준, 진혜진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